

세계정당인이다! 원상복합인 골프프로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남권 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봉 (명절 특별명) 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환불요청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dy.com 0801-320-7700



김형철

호랑이 굴서 제자리 찾은 '이적 3인방'



이성우

'미운 오리 새끼의 거둬내기'

KIA타이거즈가 지난 11일 문학구장에서 벌어진 SK와이브스와의 11차전에서 9회 2사에서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귀중한 1승을 챙겼다. 이날 SK에 빼어난 패배를 안겨준 당사자는 지난 5월 SK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미운 오리 새끼' 김형철이었다.

채병룡-정우람의 SK마운드에 톱톱 묶여 0-1로 패색이 짙던 9회 2사 1·3루, 노장 이종범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서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듯 했지만 이현근의 타구가 우익수 좌측에 떨어지면서 1-1이 됐다. 그리고 이어진 2사 1·3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형철은 초구를 공략해 친정팀을 울리며 역전의 함사가 됐다. SK와의 상대전적에서 1승 9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던 KIA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결승타였다.

김형철 개인에게도 이날의 안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김형철은 지난 5월4일 채종범·이성우와 함께 KIA에 새동지를

들었다. 이들 3인방과 자리를 맞바꾼 선수는 KIA 팬들의 사랑을 받던 '미완의 대기' 전병두와 유망주로 꼽히던 유격수 김연훈이었다. 그만큼 1군 무대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던 생소한 이들 3인방은 곧지 않은 시선속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김형철은 호된 신고식을 치르며 속살이 했다. 김형철은 지난 5월29일

김형철 11일 SK전 결승타

채종범 이적 후 홈런 4개

이성우 백업포수 임무 완수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친정 SK와의 경기에서 1-3으로 뒤지고 있던 8회 2루수로 교체투입되면서 KIA팬들 앞에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김형철은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실책을 저지르며 박재홍에게 만루 홈런의 발미를 제공했다. 9회 2아웃 이후 돌아온 자신의 첫 타석에서는 허무하게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팀은 2-7로 대패했다.

김형철이 KIA 데뷔전에 공·수 모두 최

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트레이드로 인해 심기가 불편했던 팬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19경기에 출전해 18번의 타석에서 2할을 밀도는 타율로 7번의 삼진을 당하며 단 2개의 안타만을 기록했던 김형철은 자신의 세 번째 안타를 통해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면서 수훈선수가 됐다.

그나마 1군 무대에서 가장 꾸준한 활동을 해왔던 채종범도 팬들의 굶지않은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KIA 팬들의 '신'(神)으로 불리는 이종범과 수비 포지션이 겹치면서 출장기회가 적었던 채종범은 12일 현재 50경기의 타율이 0.214에 불과하지만 홈런 기근으로 목마른 KIA타선에 4개의 홈런포를 선사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KIA에서 1군 데뷔를 한 이성우는 12일 현재 1할의 신통치 않은 타격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김상훈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업 포수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김형철의 결승타를 발판으로 '미운 오리 3인방'이 백조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로수 터널 '시원한 질주' 13일(한국시간) 프랑스 남부 피작에서 툴루즈까지 이어진 '2008 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대회'(투르 드 프랑스) 8구간 대회 출전 선수들이 무리를 지어 라바스탕 시 근처 가로수 터널을 지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프랑스 남부 피작에서 툴루즈까지 이어진 '2008 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대회'(투르 드 프랑스) 8구간 대회 출전 선수들이 무리를 지어 라바스탕 시 근처 가로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승엽 "올림픽 뛰겠다"

'아시아의 거포'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고난에 찬 결단 끝에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 승선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의 메달 전선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4월 14일 타격 부진으로 일본프로 야구 2군에 내려간 이승엽은 1군 복귀가 코앞에 다가와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후배들과 올림픽 본선에서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요미우리 구단을 설득하고 대표팀 합류를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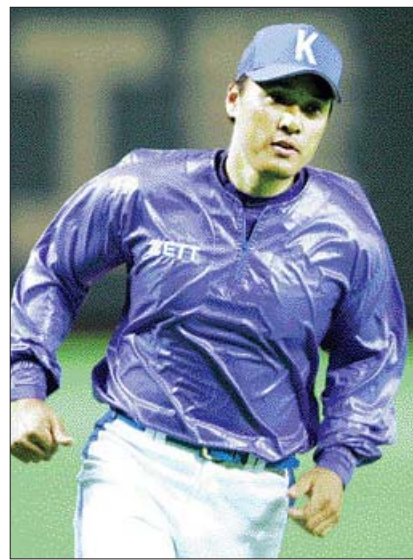
대표팀은 외야수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아쩔 수 없이 불참을 선언해 이승엽마저 팀 잔류를 택했다면 전 원 국내파로 구성된 백스나 다행히 이승엽의 결단 덕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이후 두 번째 메달을 향해 한차례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김동주(두산), 이대호(롯데), 박재홍(SK) 등 우타자 일색이던 대표팀 타선은 파괴력에서 이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는 왼손 장거리 타자 이승엽이 가세하면서 무계감이 몰라 보게 좋아졌다.

특히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과 지난 3월 최종예선을 거치면서 투타에

요미우리 설득 끝 합류 결정

야구대표팀 '메달 사냥' 활력



서 세대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믿음직한 해결사 이승엽이 4번에 포진하면 투수와 타자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쌓여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점쳐진다. '천군만마' 이승엽이 국제무대에서 올

린 성과는 부지기수다. 여섯 차례 드립팅에 출전해 홈런 9방과 42타점을 쏟아낸 이승엽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났다.

출중한 실력도 찬사를 이끌어 낼 만 하나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더욱 존경받을 만하다.

박찬호(35·LA 다저스) 등 드립팅에서 구심점 구실을 해왔던 해외파 선수들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번 올림픽에 불참하지만 이승엽만큼은 팀 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온 몸으로 이겨내며 대표 합류를 결정했다.

6억엔(추정치)으로 일본프로야구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타격이 부진해 2군에서 3개월째 머물고 있고 팀 성적에 전혀 힘을 보태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난 여론이 없지 않으나 이승엽은 오로지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결단을 내렸다. 이승엽으로서도 올림픽에서 맹타를 휘두른다면 소속팀에 복귀 후 구간의 부진을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어 남다른 각오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어리거 김두현

프리 시즌 원정 합류

다음 달 개막하는 2008-2009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김두현(26·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이하 웨스트브롬)이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들어간다. 웨스트브롬은 13일(한국시간) 프리시즌 원정경기 명단 23명에 김두현을 포함시켰다. 웨스트브롬은 17일 독일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MG, 20일 FC 쾰른과 차례로 방문 경기를 벌인다.

프로골프 한국 남매 막판 뒤집기 노린다

위창수 선두와 2타차

위창수(36·테일러메디·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디어 클래식 3라운드에서 선두와 2타 뒤진 공동 6위를 달렸다.

위창수는 13일(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실버스 디어던 TPC(파71·7천257야드)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줄여 13언더파 200타가 됐다.

순위는 전날에 비해 4계단 내려섰지만 선두와는 여전히 2타 차여서 마지막 날 충분히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17개 대회에 나와 4월 바이런넬슨 챔피언십 공동 7위가 가장 좋은 성적인 위창수는 아직 투어 우승 경험은 없다. 2번홀(파5)과 9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전반 9개 홀을 깔끔하게 마친 위창수는 후반에서는 14번과 15번홀(이상 파4)에서 버디와 보기를 거듭해 더 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에릭 액슬리와 케니 페리, 브래드 에더모니스(이상 미국)가 나란히 15언더파 198타로 공동 선두를 달렸고 제이 윌리엄슨, 윌 맥캔지(이상 미국)가 1타 뒤진 공동 4위에 자리했다.

1960년생으로 올해 48세인 노장 페리는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공동 선두로 뛰어올라 기분 좋게 마지막 라운드를 맞게 됐다.



지은희 4타 뒤진 2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최종 라운드 역전승으로 장식했던 지은희(22·휠라코리아·사진)가 한 달 만에 두번째 뒤집기 드라마를 예고했다.

지은희는 13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제이미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폴라 크리머(미국·195타)에 이어 2위(14언더파 199타)를 달렸다.

첫날 5타차, 2라운드 6타로 2위를 지켰던 지은희는 사흘 내내 크리머를 따라 다니며 우승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특히 맞대결을 펼치는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타수차를 4타로 줄여 상대를 압박했다.

웨그먼스LPGA 최종 라운드에서 3타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던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볼도그처럼 물고 늘어졌다'고 말했던 지은희의 독심에 4타차는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타수차이다.

이 대회에서 다섯 차례나 우승컵을 안았던 박세리(31)는 1타를 잃어 공동 29위(4언더파 209타)로 밀렸고 이븐파 71타를 친 위성미(19·미국 이름 미셸 위)는 공동 54위(이븐파 213타)에 그쳤다.



박찬호 22일 콜로라도전 선발 유력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미국프로야구 올스타전 이후 선발전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저스는 13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올스타전(15~16일) 이후 선발전 운용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박찬호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스타전 직후 19~21일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경기에는 구로다 히로키, 채드 빌링슬리, 데릭 로가 마운드에 오르고, 22~24일 쿠어스필드에서 열

리는 콜로라도 로키스 방문 경기에 박찬호, 에릭 스틸즈, 구로다 순으로 선발 등판한다.

박찬호는 22일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전(오후 10시5분) 선발 기용이 유력하다.

지금까지는 통릴리프 기용이 예고됐다가 선발 투수가 나올 수 없게 되면 박찬호가 '뺨질' 등판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엔 4선발 등판이 예고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